

2026.4.23.

출장 결과 보고

「수탁과제 2026인차이나포럼운영」
국외 조사 보고

「수탁과제 2026인차이나포럼운영」 국외 조사 보고

I 출장개요

■ 출장 목적

- 수탁과제 「인차이나포럼운영2026」 관련하여 중국 후난성 창사 등 출장을 통해 ①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주관 <한중지방정부교류회>에 참가하는 한편, ②창사 도시재생 및 문화관광 주요 지역 시찰을 통해, 인천의 대중국 지방외교 연구 및 인차이나포럼 의제 발굴에 참고함

■ 출장 기간: 2026. 4. 14.(화) ~ 2026. 4. 18.(토), 4박 5일

■ 출장 국가 및 도시: 중국 창사시, 천저우시, 광저우시

■ 출장자: 김수한

■ 담당업무:

출장자	직급	부서	업무 내용
김수한	선임연구위원	경제산업연구부	출장 기획, 한중지방외교 관계사 면담 및 답사 및 면담 진행

■ 출장일정:

일 자	지 역	시 간	주 요 일 정	비 고
4/14 (화)	인천 → 창사	오전	공항 이동	
		오후	인천→창사 13:45-16:05 야간 역사문화 명소 타이핑제 (太平街) 조사	CZ3066
4/15 (수)	창사	오전	주창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 조사	
		오후	역사문화 도시재생 차오종제(潮宗街) 조사	
4/16 (목)	창사	오전	한중지방정부교류회의 및 면담 조사	
		오후	한중지방정부교류회의 및 면담 조사	
4/17 (금)	창사→ 천저우	오전	창사→천저우	고속철
		오후	천저우역사박물관, 생태재생지 카오이구(高椅谷) 조사	
4/18 (토)	천저우/광저우 →인천	오전	국립생태공원 망산(茫山) 무장애 탐방 인프라 조사	
		오후	천저우 → 광저우 / 광저우 → 인천	CZ339

II 출장 결과

1 한중지방정부교류회의

■ 행사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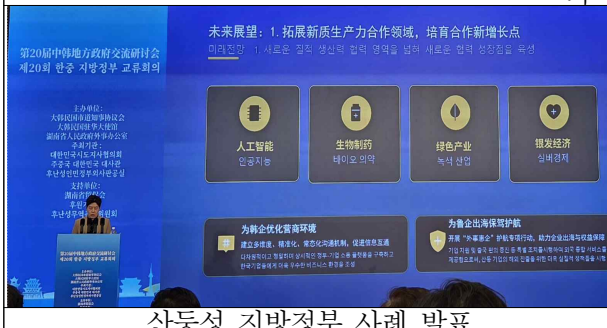
- 한중 양국 지방정부 국제협력 담당자가 참여하여 국제교류 정책 및 사례, 사회·경제 발전 현황 등을 공유하는 지방외교 교류 플랫폼
- 2026년 중국 후난성 창사에서 개최한 제20회 회의에는 중국 측 200여 명, 한국 측 100여 명의 지방정부 관계자가 참여



한중 지방정부 대표단 기념 촬영



회의 모습



산둥성 지방정부 사례 발표



티벳 지방정부 사례 발표

[그림 1] 제20회 한중지방정부교류회의 (‘26.04.16)

- 한국의 대구경북강원, 중국 산둥-후난·장시·선양·티벳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이 등이 지역현황 및 대중국 교류 성과와 정책을 발표
- 한국지방정부 주중사무소의 지역 홍보부스 및 후난성 지역산업·문화 전시가 부대로 설치



[그림 2] 제20회 한중지방정부교류회의 (‘26.04.16)

■ 시사점

-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외교 허브 기능과 경험의 축적
 - 시도지사협의회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가 광역지자체의 지방외교를 지원하는 것임. 그동안 정보 공유, 공동 대응,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지며 집합적 역량이 형성된 것을 확인
- 한중 지방외교의 비대칭성 뚜렷
 - 이번 교류회에서의 발표 및 관계 공무원 면담을 통해, 한중 지방외교에 있어 비대칭성이 뚜렷함을 확인. 즉, 중국의 경우 당-국가 체제 하에서 중앙과 지방의 의사 권한이 비교적 일관되게 통제되며, 지방정부는 중앙 전략과 정합적으로 움직임. 동시에 동원 가능한 공공·민간 자원의 규모와 속도 측면에서도 우위를 보임

-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구조 속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높지만, 그만큼 중앙-지방 간 전략 정합성과 자원 결집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
- 한중정상회담 의제 및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중지방교류 의제와 정책 과제를 발표한 중국과 달리, 한국 측은 주로 특산품 교역, 관광객 유치 등 전통적 교류사업을 집중적으로 제시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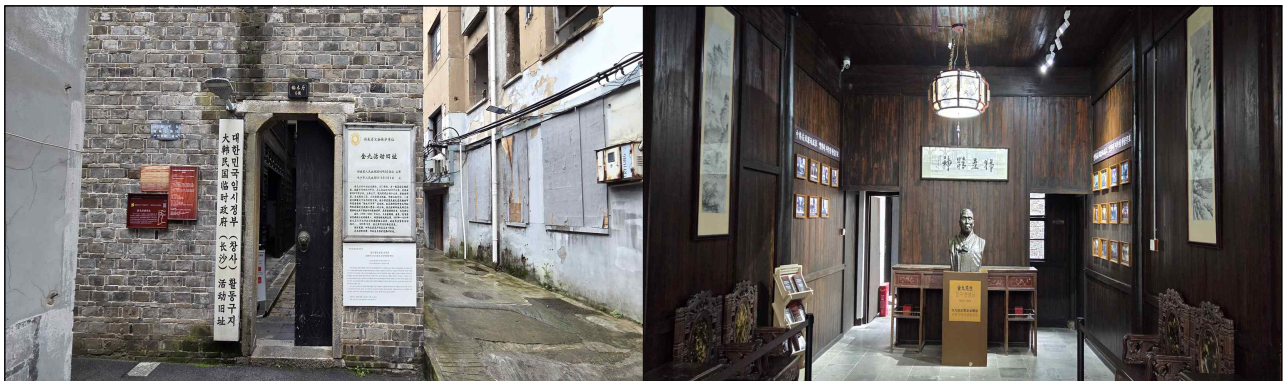
○ 민주·자치 기반 한국지방외교 역량 강화 긴요

- 민주·자치 기반의 한국 지방외교 역량 강화는 이러한 비대칭을 보완하기 위한 핵심 과제임
- 다만 권위주의적 모델을 모방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도, 규범적으로도 한계가 있음
- 대신 민주주의의 강점인 투명성, 참여성, 네트워크 기반 협력, 민간자원의 자발적 결집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함
- 예를 들어 중앙-지방 간 정책 정합성을 강화하되, 지방정부의 창의성과 현장성을 유지하는 ‘연계형 거버넌스’, 그리고 학계·기업·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다층적 외교 생태계 구축이 중요함. 이 같은 점에서 현재 인차이나포럼을 중심으로 한 인천의 대중국 교류협력 거버넌스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음

② 창사시 역사·문화 명소·시설 탐방

■ 주창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유적

- 1937년 12월 중일전쟁에서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난징이 함락당하자 임시정부 요인들은 1937년 11월 말 후난성 창사시로 근거지를 이동하여 독립운동을 지속
- 창사시 지방정부에서 창사대한민국임시정부활동구지기념관을 설치하여 당시 임시정부의 모습을 보존하여 지역 명소화에 활용
- 주로 환발해 권역에 집중되어 있는 인천의 대중국 교류를 창장유역 등 동남부 연해로 확장하는데 있어, 상하이-창사-충칭으로 이어지는 임시정부 이동 궤적을 활용한 대중국 교류협력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



[그림 2] 주창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유적

■ 역사·문화명소-타이핑제 (太平街) 및 차오종제(潮宗街)

- 창사시 지방정부는 전통가옥이 밀집한 타이핑제와 차오종제 일대를 전통근대 문화역사 경관지구로 지정하고, 역사문화 명소로 체계적으로 육성
- 전통 및 근대 가옥과 가로와 기본 구조와 외관은 보존하되, 내부는 식당과 문화소비재 상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여 지역 소비경제의 활력을 제고
- 야간경관 인프라를 조성하여, 해당 지역을 후난성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명소로 발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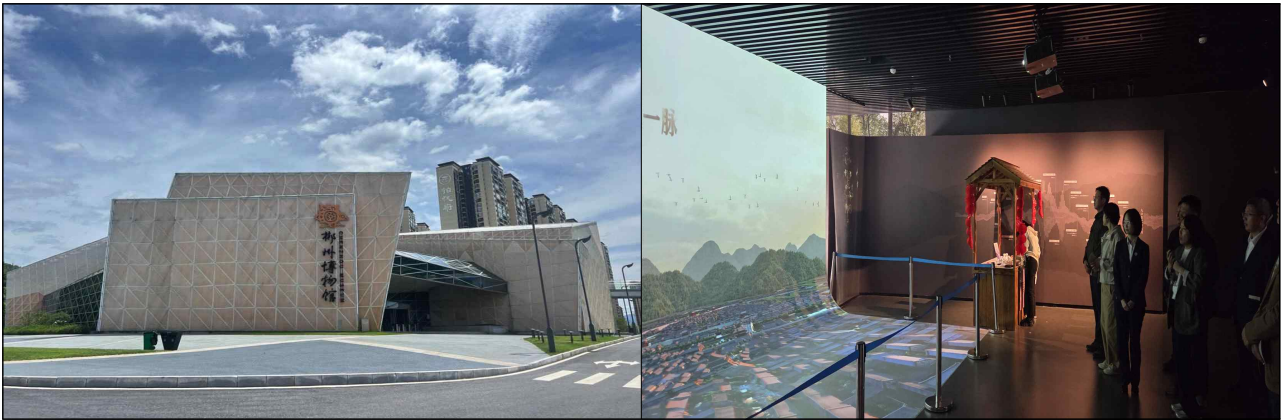


[그림 3] 타이핑제 및 차오종제 경관

③ 천저우시 문화·생태 인프라 및 명소 탐방

■ 천저우박물관

- 후난성 남부 지역의 역사와 산업, 그리고 지역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시 역사박물관
- 천저우가 형성되어 온 역사적 궤적과 도시 발전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
- 특히 산업사 전시에서는 천저우의 핵심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광산 자원과 금속 산업의 발전이 중심으로 다뤄짐
 -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은을 비롯한 광물 생산지로 알려져 있으며, 이러한 자원 기반이 도시 성장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음을 다양한 유물과 자료를 통해 구현
 - 민속생활사 전시는 주민 생활양식과 전통문화, 공예 등을 통해 일상적 차원의 지역 정체성을 드러냄



[그림 4] 천저우시 역사박물관

■ 국립생태공원 망산(茫山) - 무장애 탐방시설

- 망산은 후난성 천저우 일대에 위치한 대표적인 산림생태공원으로, 원시림에 가까운 자연환경과 높은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지역
- 최근에는 자연보호 중심의 개발을 넘어, 다양한 계층이 접근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면서 무장애 탐방시설이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
- 이 공원은 고산지형과 깊은 계곡이 결합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에는 접근성이 제한적이었으나, 데크형 탐방로와 전망시설, 케이블카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동 편의성을 크게 개선
- 특히 주요 경관 지점까지 연결되는 목재 데크길은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 노약자나 보행 약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. 일부 구간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폭과 경사 기준을 반영한 무장애 동선으로 구축
- 또한 케이블카 시설은 산악지형의 물리적 제약을 보완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동. 이를 통해 체력적

제약이 있는 방문객도 고지대 전망지에 접근이 가능

- 전망대와 휴식공간 역시 접근성을 고려해 배치, 체류형 관광을 가능하게 설계



[그림 5] 망산 무장애탐방설비(잔도) 및 관련 홍보 사진

■ 생태재생지 - 카오이구(高椅谷)

- 카오이구는 과거 인근 화력발전소 등 산업활동의 영향으로 폐수와 폐기물이 유입되던 지역으로, 장기간에 걸쳐 환경오염이 누적된 대표적인 훼손 공간이었음. 이에 따라 계곡 수질이 악화되고 토양 오염과 식생 훼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생태계 기능이 약화되었고, 지역의 거주 및 이용 가치 역시 크게 저하
- 이후 추진된 생태복원은 오염원 차단을 출발점으로 수질 개선, 하천 정비, 토양 복원, 식생 회복 등 종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. 특히 계곡 수계를 중심으로 한 정비를 통해 수질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, 자생 식물 복원을 통해 생태계의 자연 회복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
- 카오이구는 훼손된 산업 영향 지역에서 자연경관 기반의 생태휴양 공간으로 전환되었으며, 현재는 천저우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로 발돋움



[그림 6] 카오이링 홍보센터의 생태복원 홍보물 및 현재 경관

4 인천의 대중국 지방외교 및 인차이나포럼 반영 사항

■ 중국 창장권역 네트워크 - 협력 추진

- 인천의 대중국 교류는 기존 환발해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창장 하류·중류·상류를 연결하는 창장권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
- 창사와 충칭으로 이어지는 내륙 축은 산업구조 전환과 내수시장 확대, 교통 인프라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으로, 협력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
- 이들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문화·생태 관광, 산업 및 투자 협력, 도시정책 교류를 병행할 수 있음. 또한 주창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은 한중 교류의 역사적 상징성과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지닌 자산으로, 공공외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

■ GX·문화콘텐츠 의제의 발굴

- 창사 타이핑제와 차오중제 사례는 역사경관 보존과 상업적 활용, 야간경제 활성화를 결합한 도시재생 모델로,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도시활성화 전략의 방향을 보여 줌
- 천저우 망산은 생태보전과 무장애 탐방 인프라를 결합하여 포용적 관광을 구현한 사례이며, 카오이구는 환경 훼손 지역의 생태복원과 경관 회복, 관광자원화를 통해 생태와 경제를 연계한 GX 기반 관광모델을 제시함
- 인차이나포럼에서는 생태복원과 지역경제의 결합, 문화유산 기반 도시재생과 야간경제, 포용적 관광과 무장애인프라 등 중심으로 중국의 정책사례에 주목, 향후 인차이나클러스터회의와 인차이나 청년논문공모전 등을 통해 이러한 중국 사례와 한국 사례를 비교·분석하고, 정책 적용 가능성과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

■ 시도지사협의회와의 협력 강화

- 한중지방정부교류회의를 통해 시도지사협의회가 광역지자체 지방외교를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, 그동안 정보 공유, 공동 대응,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집합적 외교역량이 축적되어 왔음을 확인
- 향후 인천은 인차이나포럼을 매개로 시도지사협의회와의 협력을 제도화하여, 대중국 교류 의제의 공동 발굴 및 공동 프로그램 기획, 시도협 지방외교 DB를 활용한 정책 연구와 사례 축적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

■ 자치거버넌스로서 인차이나포럼 선도사례 적극 홍보

- 한중 지방외교는 중앙-지방 간 전략 정합성과 자원 동원력 측면에서 구조적 비대칭이 존재하며, 중국은 일관된 통제와 집중된 자원 동원을 기반으로 전략적 접근을 수행하는 반면, 한국은 자율성은 높으나 전략성 측면에서 상대적 제약이 존재함
- 이번 한중지방정부교류회의 발표 결과를 보면, 중국은 정상외교 후속과제 및 첨단산업 중심의 협력 과제를 제시하는 반면, 한국은 특산품 교역과 관광 중심의 전통적 교류에 머무르는 경향이 확인됨
- 이러한 비대칭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방식이 아닌 투명성, 참여성, 네트워크 기반 협력, 민간자원의 자발적 결집 등 민주주의의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함
-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차이나포럼은 지방정부 주도로 학계·기업·공공이 참여하는 다층적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 기반 지방외교 거버넌스의 선도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
- 아울러 인차이나포럼의 운영 성과와 거버넌스 모델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함으로써 인천의 대중국 지방외교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